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도서관
탐방

국내 초·대 북한·통일 전문 도서관

지난 해 11월 말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 신기남 위원장 등이 북측(평양)을 방문해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고 북측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2006년 8월 남·북한이 한자리에 모여 도서관문화를 얘기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생각이 남북통일문제에 도서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이르러 현재 국내에서 이 부분의 최대 전문 도서관인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알리기 위해 센터를 방문했다.

‘북한’... 시대가 변했다 할지라도 분단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무척이나 낯선 것은 사실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가 흔히들 일본이라 말하지만 북한 또한 그러하다.

접근성 좋은 도서관

북한자료센터는 광화문 우체국 6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도서관” 얘기에서 많이 대두되는 화제 중 하나가 “입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다는 것은 대단한 장점이다.



〈정분희 센터장〉

건물 1층 입구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6층 북한자료센터로 올라가니 정분희 센터장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북한자료센터는 지난 1989년 5월 22일

북한 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 자료공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설립된 곳이다.

북한에서 발행된 자료를 비롯해 북한 및 통일관련 자료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소장 자료는 총 87,000권으로 일반도서 63,000권, 정기간행물 10,000권(로동신문, 민주노선, 조선문학 등), 파일 자료 4,400개, 시청각자료 6,000개, 통일부 발간물 4,000개, 보안자료 620개이다.

또한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개가제를 실시해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북한자료센터 입구에 들어서니 사무 공간이 먼저 보였고, 그 옆에 시청각실이 눈에 들어왔다. 복도에는 북한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각종 포스터나 홍보물들이 걸려 있었다.

우리는 정분희 센터장과 사무실에서 잠시 얘기를 나누고 센터장님의 상세하고도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자료센터를 차분히 돌아보았다.

우선 통일전시실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2005년 초에 신설한 공간으로 북한의 생활물품 및 교과서 등을 전시하고 있었다. 학교나 기관 등에서 단체 견학을 올 때 유용하게 활용하는 공간이라고 한다.



〈통일전시실〉



〈북한위성TV시청실〉

통일전시실 다른 한쪽에는 북한 위성 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북한위성TV시청실’이 있었다. 30여명 정도가 시청할 수 있는 규모였다.

자료실 이모저모

통일전시실 맞은편에는 자료실이 위치하고 있었다. 자료실에 들어서니 맨 처음 안내데스크가 보였고 중앙에



〈핫코너〉

‘핫(Hot)코너’라는 이색적인 사인판이 들어왔다. 핫코너는 최근 북한·통일관련 주요 이슈가 되는 책, 학문, 논문, 기사들을 이용자의 출입이 잦은 곳에 모아놓고 이용자들이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별도로 서가를 설치해 꾸며놓은 공간이다. 다른

도서관에서도 활용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자료실 내에는 서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각 서가마다 『김일성저작집』, 『조선중앙년감』 등 다양한 책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정기간행물 서가에는 『로동신문』, 『인민일보』, 『통일신보』 등의 신문과 예전 19세기말 유행하던 딱지본을 연상케 하는 천연색색으로 장식된 북한 간행물의 표지들도 눈에 띄었다.

자료실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서가를 브라우징하

고 책을 읽고, 사서와 얘기를 나누고 컴퓨터를 통해 정보 검색을 하고 있었다. 북한자료센터는 북한학을 공부하는 석·박사들이 주 이용자들이고 최근에는 각 대학에 북한학이 교양강좌로 많이 개설됨에 따라 과제 해결을 위해 찾는 학생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한다. 그 외에 기관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단체로 견학을 온다고 한다.



〈북한간행물 서가〉



〈자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자료실 내 안내데스크에는 여전히 사서가 빠른 손놀림으로 책을 정리하고, 틈틈이 이용자의 문의에 친절하게 답해주는 모습을 보았다. 자료센터의 특수성 때문에 사서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을 보면서 전문사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자료실 한쪽 끝에는 이동식 서가가 자리잡고 있었고 다른 한쪽 벽면 캐비닛들에는 시청각자료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그 앞에는 시청각자료에 대한 목록이 비치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궁금해하자 센터장님이 최근 인기가 있는 비디오 몇 편을 꺼내어 보여주시며 설명해주셨다.

여러가지 "궁금증"

자료실을 둘러보는 중간중간 궁금한 점도 여쭙보았다. 수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북한자료는 어떻게 입수하며, 입수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책은 어떻게 선정될까? 등이 제일 궁금했다.

책은 주로 아시아저널, 남북교역, 월트레이트 중계상에서 목록을 받아 원하는 도서를 선정해서 중국과 일본

을 통해 입수되며 로동신문 등 일간지는 3일 정도면 받아볼 수 있다고 한다. 예전에 비하면 무척 빨라졌다고 한다. 그 외에도 조선수출입상사목록, 조선중앙통신 등에서 정보를 얻어 원하는 책을 입수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외교안보연구원,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등 7개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위해 정보교류협정체결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북한자료센터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을 접목시킨 듯한 느낌을 받았다. 북한자료의 공개정책,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활동 지원, 북한 및 통일관련 정보자료전산화(조선중앙연감, 조선대백과사전, 김일성저작집, 부내생산물 1990년 이후 2002년까지 DB구축), 북한 반입 자료 심의 등 전문적인 일 뿐만이 아니라 북한영화 상영, 북한실상설명회 등 흔히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활동과 유사한 활동들도 전개되고 있었다.

영화는 북한에서 제작된 예술영화, 아동영화, 기록영화 등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상영한다. 누구나 볼 수 있으며, 단체상영은 수시로 진행되며 신청기관과의 협의 하에 출장 상영도 하고 있다. 영화 관람이 끝난 후에는 새터민(탈북자)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해 이용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고 한다.

북한의 도서관 사정 및 교류 부분에 대한 것도 여쭙는데, 직원들의 북한 출장 시 인민대학습당을 둘러보기도 하고, 그곳에서 직접 가지고 올 수 있는 자료는 수집을 하지만, 직접적인 교류가 없어서 아쉽다고 말한다.

도서관 간의 교류 부분은 북한자료센터가 직접 나서서 것보다는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계기로 한국도서관협회나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나서주면 필요한 부분은 센터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한다.

제한적인 서비스에 대한 어려움

현재 북한자료센터는 입지는 좋지만 방문객에 비해 협소하다. 정분희 센터장은 기회가 되면 유희청사 등을 활용해 “통일체험의 장”을 만들어 운영프로그램을 다양하고 구체화시켜 국민들이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싶다고 말한다.

개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재에도 이용자들은 좀 더 편리한 시설에서 손쉽게 웹으로 공개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 대한 많은 부분이 개방되었다고해도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비공개된 점이 많기 때문에 이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어 곤란할 때도 적잖다고 어려움을 말한다.

“이용자에게 원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만족감을 느끼며 고마움을 표시할 때” 사서들은 많은 보람을 느낀다. 북한자료센터의 사서들은 특수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니 안타깝기도 했다.

도약하는 북한자료센터

그러나 올 8월에 열리는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북한도 참여한다고 하니 다양한 기회를 잘 이용한다면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용자들이 지금보다 자유롭게 자료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북한자료센터는 2006서울세계도서관대회 방문도서관으로 선정된 만큼 세계 많은 도서관인들에게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영문 팜플릿 제작, 북한영화상영, 새터민을 통한 설명회, 자료실 투어 등을 준비하고 있다.

2006년 8월, 드디어 남·북한 도서관계가 만난다. 그런 의미에서 8월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 세계 도서관인들에게 북한자료센터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은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 (글

: 심효정, 사진 : 최민경)